

데지마로 본 일본과 네덜란드 관계

신동규 동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쇄국·해금’과 서양 관계의 네덜란드 단일화

나가사키(長崎)에 위치한 인공섬 데지마(出島, 그림 1)는 에도시대(江戸時代) 네덜란드 상관(商館)의 전용공간으로 서양문명과 과학기술 유입의 중심지이며, 18세기 이후 ‘난학(蘭學)’의 발상지로서 일본 근대화의 원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본이 네덜란드로 서양 관계를 한정했던 것은 아니다. 16세기 중반부터 스페인·포르투갈·영국 등 서유럽 국가와의 관계도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활발했다. 특히, 1543년 포르투갈인이 규슈 남부 다네가시마(種子島)에 표착한 사건은 일본과 서유럽 관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습득한 조총제작법과 대량생산은 이른바 ‘약육강식·하극상’의 시대라고 불리는 혼란한 전국시대(戰國時代)를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통일의 시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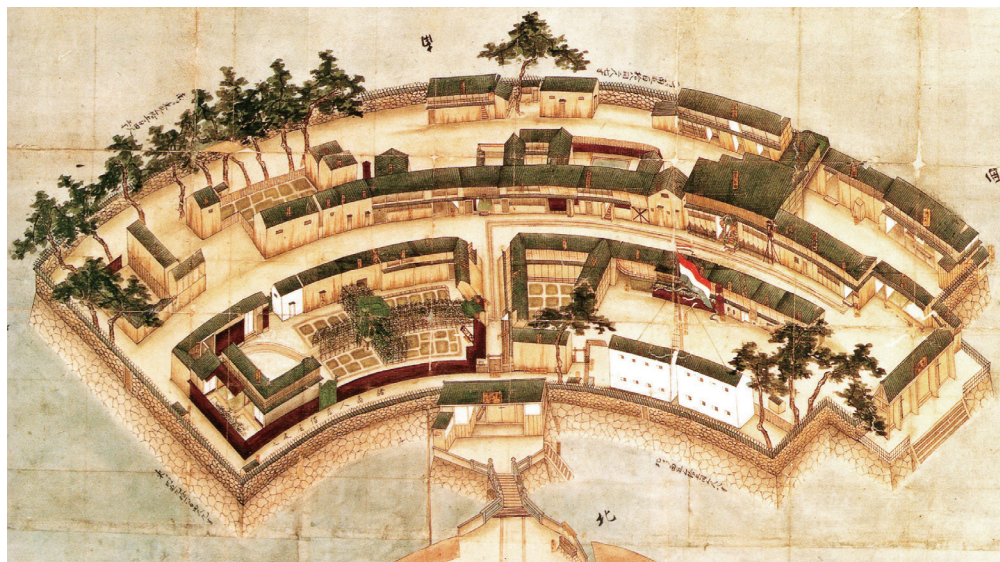


그림 1 나가사키 네덜란드 상관¹

전환하는 역사적 분기점을 끌어냈다.

이렇듯 일본과 서유럽 관계의 시작이 선진적인 과학기술문명과 세계 정보의 습득이라는 측면, 나아가 통일정권을 창출하는 데에는 매우 유효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일본의 위정자들은 서양문명과 함께 들어온 그리스도교를 일본의 전통과 권위를 무시하고 침략적 성격을 가진 ‘사교(邪敎)’ 집단으로 인식했다. 물론 노부나가는 불교세력의 약화와 대외무역을 위해 선교사들을 우대하기도 했지만, 이후의 히데요시는 서양세력에

¹ 荒野泰典 監修, 『鎖國の研究』, 2004, ポプラ社, 15쪽.

“

에도시대 초기까지 왕성했던 서양과의 교류가 ‘쇄국·해금’ 정책의
과정 중에 네덜란드와의 단일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

대한 위기의식에서 1587년에는 바테렌(선교사·신부) 추방령, 1596년에 금교령을 내림과 동시에 1597년 2월에는 교토(京都)에서 활약하고 있던 가톨릭 신자 26명을 처형하기에 이른다. 더욱이 에도시대에 들어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그리스도교 금교령(1612, 1614)까지 실시하는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교를 ‘사교’로 규정하여 금지함과 동시에 막부가 대외무역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른바 ‘쇄국(鎖國)’ 또는 ‘해금(海禁)’ 정책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이후 근세 일본 국제관계의 바탕을 이룬다.

물론, 에도막부 초기 단계에서 서양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것은 아니었다. 1637년 10월 25일부터 1638년 2월 28일까지 그리스도교인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시마바라(島原)·아마쿠사(天草)의 난에서 봉기세력 약 3만 7,000명을 모두 전멸시키고, 이를 계기로 1639년 포르투갈과 단교함으로써 서양과의 관계를 모두 단절한 것이다. 유일하게 네덜란드와의 관계만은 나가사키의 데지마를 통해 서구 문물의 도입과 세계 정보 유입의 창구로서 막부 말까지 유지하게 된다. 에도시대 초기까지 왕성했던 서양과의 교류가 ‘쇄국·해금’ 정책의 과정 중에 네덜란드와의 단일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그림 2 히라도 네덜란드 상관²

2. 동인도연합회사(VOC) 설립과 일본 진출

그렇다면 일본과 네덜란드의 관계(이후 ‘일란 관계’로 약칭)는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1600년 3월 16일 네덜란드 상선 리흐테호(De Liefde)의 분고(豊後) 표착사건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네덜란드인뿐만 아니라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외교고문을 담당했던 영

² 平戸市日蘭交流400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會 編, 2000, 『平戸オランダ商館展』, 同委員會, 37쪽.

국인 윌리엄 애덤스(William Adams)³도 승선하고 있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1600년에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자 이에 자극을 받아 1602년에 국가 주도하에 통합된 회사, 즉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연합회사(Vereenighde Oost-Indische Compagnie, 이하 ‘VOC’로 약칭)를 창립하여 동양으로의 무역 진출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정부로부터 대외무역 독점권을 부여받아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군대 편성, 관리 임명 등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어⁴ 이른바 정치·경제·군사권을 가진 권력집단이 되었다. 한 마디로 네덜란드가 VOC이며, VOC가 네덜란드인 일종의 회사 국가였다.

이러한 상황에 리히데호의 표착사건은 VOC에게 일본 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었고, 결국 포교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야스로부터 일종의 무역허가증인 주인장(朱印狀)을 받아 1609년 일본의 히라도(半戸)에 무역상관을 개설한다(그림 2). 당시 에도막부는 초기부터 남만(南蠻)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교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특히 포교활동에 노력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가톨릭 국가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동시에 포교에 거의 무관심하였던 네덜란드와 영국은 우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뒤를 이어 1613년에는 영국도 상관을 설치하면서 히라도는 에도시대 초기 서양문명을 받아들이는 외교창구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간다.

3 윌리엄 애덤스는 1600년 일본에 표착한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중용되어 귀화했고, 외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으며, 80톤, 120톤급의 서양선박을 건조하기도 했다. 후에 미우라 안진(三浦按針)이라는 일본식 이름과 함께 사가미노쿠니(相模國)의 일부를 영지로 받아 서양인 최초로 사무라이가 되었다.

4 永積昭, 1971, 『オランダ東インド會社』, 近藤出版社, 29-52쪽.

“

막부는 그리스도교 금제를 위해 포르투갈을 감시할 목적으로 나가사키에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 데지마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국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쉽다는 이점도 있어 히라도를 대신해
이곳 데지마가 새로운 외교·무역창구로서 부상하게 된다.

”

3. 나가사키 앞바다에 건축된 인공섬 데지마

그런데 영국의 히라도 상관은 1623년 ‘암보이나(Amboyna)사건’⁵으로 점차 네덜란드와의 일본무역 경쟁에서 밀려나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당시 중국무역의 필요성도 대두되어 1623년 12월 23일 상관을 폐쇄하고 만다. 그 배경에는 일본인 부상(富商)들과의 갈등도 하나의 원인으로 존재하지만,⁶ 어찌 되었든 영국의 일본무역은 완전한 실패로 끝난다. 이후 1634년부터 막부는 그리스도교 금제(禁制)를 위해 포르투갈을 감시할 목적으로 나가사키에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 데지마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국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쉽다는 이점도 있어 히라도를 대신해 이곳 데지마가 새로운 외교·무역창구로서 부상하게 된다. 그런데

5 말루쿠제도의 암보이나섬에 있는 영국 동인도회사 상관을 네덜란드가 습격하여 영국 상관원 전원을 살해한 사건으로, 네덜란드가 이 섬을 장악함으로써 영국의 향료무역은 좌절되었고, 이후 영국이 인도무역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6 東京大學史料編纂所 編, 1979, 『イギリス商館長日記』(1620. 12. 13), 東京大學史料編纂所.



그림 3 에도참부 행렬⁷

그즈음 1637년 10월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이 발생하였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막부는 1639년에 포르투갈과 단교한 후,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1640년에 히라도 상관의 건물 지붕 장식판에 서력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상관 건물의 파괴를 명한다. 결국 히라도 상관은 폐쇄되었고, 1641년 6월 상관을 데지마로 이전하면서 막부 말에 이르기까지 네덜란드 선박의 일본 입항은 나가사키, 상관원의 일상 업무와 거류지는 데지마로 한정되었다.

그렇다면 데지마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규모는 어떠했을까. 데지마

⁷ 筑摩書房 編, 1976, 『長崎・横浜-江戸時代圖誌 25』, 筑摩書房, 圖 86.

는 나가사키의 상인 25명이 막부의 지시를 받아 1636년에 완공했는데, 대문·다리·석벽 등의 축조 비용은 막부가 맡았고, 그 외 경비는 나가사키의 마치도시요리(町年寄)와 이토와푸도시요리(糸割符年寄) 등 초닌(町人)이 출자했다. 애초에는 ‘쓰키시마(築島)’라고 불렸는데, 남쪽 바다를 향해 부채 모양으로 축조한 인공섬이었으며, 남쪽은 약 118칸(間, 215m), 북쪽은 96칸(175m), 동쪽 45칸(64m), 서쪽 36칸(66m)으로 총면적은 약 4,500평(15,000m²)에 이르렀다. 그 안의 건물은 전부 목조건축이었는데, 이것은 석조건축이었던 히라도 상관의 요새화를 우려하여 파괴를 지시했던 막부의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전했을 당시 기록을 보면 애초에는 주거용 7동(棟)과 작은 창고 9동이 상관의 전용공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4. 데지마에서의 ‘합법적 통제’와 ‘합법적 감옥’ 상태

데지마는 북쪽에 출입문과 함께 데지마바시(出島橋, 그림 1의 중앙 하단 부)라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나가사키 시내로 연결되었다. 이는 데지마에서 유일한 육지로의 출구로, 네덜란드인은 1년에 1회(1790년부터는 4년에 1회) 쇼군을 알현하기 위한 ‘에도참부(江戸参府, 그림 3)’ 때에만 이 다리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⁹ 일본인 역시 역인(役人)·상인·유녀(遊女)들만 이 다리를 건너 데지마 출입이 허용되었고,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의 관리

8 永績洋子 譯, 1970, 『平戸オランダ商館日記』(1641. 6. 10), 岩波書店.

9 1820년대 중반 데지마에 체재했던 독일인 지볼트(Philipp F. von Siebold)는 의사 겸 학자로서 일본인과도 신뢰가 두터워 데지마 밖으로 외출할 수 있었기에 일부 예외는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그림 4 데지마 네덜란드 상관의 하역 모습¹⁰

오른쪽의 화물을 내리는 곳과 상관 안쪽의 모습을 보면 많은 네덜란드 상관원과 일본인 역인·노동자·유녀(遊女)를 볼 수 있다.

하에 그 이외의 일반인은 모두 엄하게 통행을 금지하였다.

통상적으로 데지마에 상주하는 네덜란드인은 상관장 1명을 비롯해 부상관장 1명, 서기 1~3명, 창고장 1명, 상관장의 보조원 수 명, 의사·목수·조리사·말레이하인 등 15명 내외였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의 일

¹⁰ 神戸市立博物館 編, 1998, 『日蘭交流のかけ橋』, 神戸市立博物館, 34-35쪽.

“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합법적인 통제’였으며,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일종의 ‘합법적인 감옥’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를 박탈당했다.
”

상적인 무역업무가 행해졌기에 일본인으로 데지마의 책임자인 데지마 오토나(出島乙名),¹¹ 네덜란드어 통번역을 담당한 다수의 일본인 통사(通詞), 고용인, 기록 담당, 심부름꾼, 불조심 당번, 선박 관리인, 문지기, 물품 매수인, 급사, 정원사 등 100여 명의 일본인이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Batavia) 상관을 출발해 타이완해협을 거쳐 7~8월경에 나가사키에 입항하는 네덜란드 선박¹²이 정박하고 있을 때에는 네덜란드인과 관계되는 서유럽인, 그리고 VOC에 고용된 말레이인들을 포함한 하급 외국인들이 데지마에 상륙하여 북적거리기도 했다(그림 4).

이렇듯 당시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최대 국제도시의 성격을 가진 데지마였지만,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인은 외부와 통제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막부가 그리스도교 금제와 일본인의 사사로운 대외 교류를 금지했기 때문이며, 데지마의 출입문인 데지마바시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악행·밀무역 등에 대한 고발 권고와 고발자에 대한 상금 수여를 기재한 규정을 비롯해 여성·수도승·승려·결인 등의 출입과 네덜

11 데지마에서 무역업무를 총괄하며, 데지마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일본인들의 감독과 지휘를 책임지는 동시에 데지마 출입허가증을 발급하는 일을 담당했다.

12 통상 매년 2척으로 약 4개월 정도 정박하고 출항하였다.



그림 5 복원된 데지마 외관(필자 촬영)

데지마바시가 있었던 곳이며, 부채 모양의 데지마 안쪽의 모습이다. 현재는 다리가 놓여 있다.



그림 6 복원된 데지마 내부의 건물(필자 촬영)

오른쪽이 부상관장의 주거지, 왼쪽이 1번 선박의 선장실과 1·2번 창고의 모습이다.

란드인의 외출을 금지한다는 두 개의 꾀말까지 게시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합법적인 통제’였으며,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일종의 ‘합법적인 감옥’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를 박탈당했다. 그럼에도 데지마는 서양과학문명과 선진기술의 유입창구였고, 동시에 네덜란드인은 근대로의 선도자와 같은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18세기에는 난학으로 발전하여 일본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다.

이후 일본의 개국과 함께 1856년 일란화친조약에 따라 데지마의 네덜란드인은 해방되었고, 1858년 일란통상조약에 의해 일본인의 데지마 출입도 가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데지마 상관은 네덜란드의 영사관을 겸하였고, VOC의 무역업무도 네덜란드무역회사로 이관되어 1641년 이래 데지마 상관은 역사의 막을 내린다. 현재 데지마는 1996년부터 제1기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2000년에 발굴조사와 건물 복원 등을 완료하였고, 2001~2006년까지는 제2기 사업으로 데지마를 둘러싼 석벽 중에 남측 131m를 복원하여 부채 모양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5·6).

5. 근세 일란 관계, 그 역사적 의미

그렇다면 근세 일본의 국제관계 속에서 데지마와 일란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역사적 의미 부여 문제는 일본의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이른바 ‘일본형 화이질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맺음말을 대신해 간단히 언급해 보겠다.

우선, 당시 일본이 조일 간 외교·무역거점으로 부산의 왜관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데지마 상관에는 거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 즉, 네덜란드는 매년 은 55관(貫, 초기에는 80관), 지금의 액수로 약

1억 엔(한화 약 9억 원)에 상당하는 거액을 지주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내고 있었다. 그런데도 네덜란드 측은 데지마가 다른 어떤 무역지보다도 큰 이익을 창출하는 동아시아의 무역거점인 동시에 교두보였기에, 일본의 강압적 통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은 네덜란드(VOC)가 일본 관계를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일본을 교두보로 삼아 중국과 조선을 목표로 한 동아시아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음에도 일본무역의 중요성으로 인해 이를 포기했었다는 것,¹³ 당시 VOC는 실론(Ceylon)·반다(Banda)·몰루카(Moluccas)·바타비아·소롱(Sorong)·타이¹⁴ 등의 상관에서 모두 무역적자 상태였는데, 데지마 상관에서 얻는 이익으로 그 결손을 보충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는 점,¹⁵ 또 일본무역에 대해 당시 네덜란드가 “회사(VOC)의 육지무역과 인도(동아시아) 이윤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다는 점¹⁶을 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데지마 상관은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생명줄과도 같은 무역 요충지였다.

그렇기에 데지마로 이전한 1641년부터 막부의 요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매년 세계 각국의 정보를 데지마 상관장이 직접 작성하여 『네덜란드풍설서(阿蘭陀風說書)』로 막부에 제공한 것이다.¹⁷ 더욱이 1840년부터는

¹³ 신동규, 2007, 『근세 동아시아 속의 日·朝·蘭 국제관계사』, 경인문화사, 398-404쪽.

¹⁴ 현재 실론은 스리랑카, 반다·몰루카·소롱·바타비아는 인도네시아에 포함되어 있다. 바타비아는 자카르타의 옛 지명이다.

¹⁵ 永積昭, 앞의 책, 112쪽.

¹⁶ 오스카·ナホット 著, 富永牧太 譯, 1956, 『十七世紀日蘭交渉史』, 天理大學出版部, 292쪽.

¹⁷ 상관장이 네덜란드어로 작성한 것을 일본인 통사(通詞)가 일본어로 번역한 것

네덜란드 동남아시아무역의 거점인 바타비아 상관에서 작성한 『별단풍설서(別段風說書)』¹⁸까지도 자진해서 막부에 제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이를 통해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했다는 외국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일본 지식인과 위정자들이 서양 제국에 대해 강렬한 위기를 느끼고 그 대응으로서 부국강병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일본 학계에서는 쇄국·해금에 의한 대외관계 통제를 근거로 근세시기에 이른바 ‘일본형 화이질서’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1970년에 아사오 나오히로(朝尾直弘)의 일본형 화이의식¹⁸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일본형 화이질서는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에 공통으로 보이는 ‘해금’ 개념과 연결되어 명청 교체 이후의 국제관계를 일본 중심으로 파악하는 대표적 개념으로 학계에 퍼져 있다. 하지만, 근세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총체적으로 적용한 학설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아직 고민해야 할 문제 또한 내재하고 있다.

일본형 화이질서론에서는 외국과의 관계를 설정한 ‘4개 해외창구(일본에서는 四つの口)’와 쇄국·해금정책을 통해 이 ‘질서’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4개의 해외 창구라는 것은 현재 일본 고등학교의 『일본사 B』 교과서에 게재¹⁹될 정도로 일본사에서 완전히 정착된 개념이다. 즉, 조선 관

이다. 이와 함께 막부는 나가사키 도진마치(唐人町)의 중국인들에게도 『당선풍설서(唐船風說書)』라는 중국 중심의 외국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고 있었다.

18 朝尾直弘, 1970, 「鎖國制の成立」, 『講座 日本史(4)』, 東京大學出版會, 80-81쪽.

19 高橋秀樹·三谷芳幸·村瀬信一, 2016, 「鎖國」から「四つの口」へ, 『ここまで変わった日本史教科書』, 吉川弘文館.

계를 담당한 쓰시마 창구(對馬口=對馬藩), 유구(琉球) 관계를 담당한 사쓰마 창구(薩摩口=薩摩藩), 북방 아이누(Aynu)와의 관계를 담당한 마쓰마에 창구(松前口=松前藩), 그리고 데지마에서의 네덜란드 관계, 도진마치(唐人町)에서의 중국 관계를 담당하며 3개 창구를 통괄하는 막부의 직할령 나가사키 창구(長崎口=長崎奉行)를 말한다.²⁰ 나가사키 창구는 다른 세 창구와 달리 서양과의 유일한 교류창구였다. 동시에 중국과도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었지만, 일본의 필수품인 생사(生絲)를 수입하기 위해서도 중요했기에 도진마치를 만들어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유지했다. 물론, 도진마치도 그리스도교, 풍기문란, 밀무역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데지마와 마찬가지로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그런데 일본형 화이질서론에서 말하는 4개의 창구에서 행해진 일련의 외교적 행위의 근거는 데지마 네덜란드 상관장의 에도참부, 조선의 통신사 방문, 류큐 사절과 아이누의 의례관계 등이며, 이것이 막부에 대한 일종의 복속의례인 동시에 바로 일본형 화이질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한다. 하지만, 조선통신사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은 기미(羈縻)와 회유(懷柔)의 대상이었고, 그 목적은 쇼군(將軍)의 습직 축하와 일본의 정탐이었다. 또한, 데지마 네덜란드 상관장이 에도참부까지 하며 막부에 고개를 숙인 것은 어디까지나 막부에 대한 복속이나 복종이라는 차원을 떠나 일본무역의 막대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 1630년 네덜란드 바타비아 상관장 자크 스펙스(Jacques Specx)가 1628년 일본과 네덜란드 사이에서 일

20 鶴田啓, 1992, 「近世日本の四つの「口」」,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アジアの中の日本史(2)-外交と戦争』, 東京太學出版會.

어난 타이완사건²¹의 해결을 위해 빌럼 얀센(Willem Jansen)을 일본에 파견하면서 “... 큰 선물과 막대한 지출을 의결했는데, 일본과의 자유무역은 회사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일본인은 진실로 위대하여 긍지가 높으며, 네덜란드인은 비소(卑小)하다고 해둘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일본형 화이질서와 관련된 논점은 관련 상대국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본 중심의 시각에서 자의식을 강조한 결과였다. 일본형 화이질서론을 주장한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 역시 이점에 대해서 화이질서는 확실히 각기 자국의 굳건한 자립성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편협성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²² 그리고 “18세기 동아시아에서 일본·중국·조선이 각자의 화이질서를 설정해 타협하는 동시에 각자의 해금을 실시해 국제분쟁을 최소한으로 저지하면서 안정된 국제관계를 영위하는 상태가 출현했다”²³고 하여, 주변 국가 각자의 화이질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일본에 한정하면 일본형 화이질서의 특징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주변국의 정치적 자주성을 부각한 전근대 국제관계론이라는 측면에서 유익한 역사학의 방법론으로 그 성과와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형 화이질서가 역사적으로 그 존재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화이(華夷)와 질서(秩序)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인지와

²¹ 타이완의 지배권을 주장하는 네덜란드와 이전부터 타이완 근해 지역에서 무역을 추진하고 있던 일본 주인선(朱印船) 무역상 간의 대립이 발단이 되어 막부가 히라도 상관을 잠정 폐쇄한 사건이다. 이 분쟁으로 인해 네덜란드는 5년간 무역정지, 상관원에 대한 구금 및 네덜란드 선박의 역류라는 제재를 받았다.

²²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서문(xii쪽).

²³ 위의 책, 서문(xi쪽).

“

일본형 화이질서가 역사적으로 그 존재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화이와 질서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 인지와
수용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

수용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강조해서 말하자면, 당시 일본이 ‘화(華)’이고 타국은 자신들 스스로가 ‘이(夷)’라는 것에 대해 상호 인정하여 받아들였어야 하며, 이 위계의 실체가 ‘질서’라는 실질적인 외교 형태로 명확히 드러나야만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역사라는 것이 역사가의 시각과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기에 데지마로 본 일란 관계 역시 일본형 화이질서라는 측면에서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신동규(申東珪, Shin, Dong-kyu)

동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일본 릿쿄대학(立教大學)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사학)를 받았다. 에도시대 일본의 국제관계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근대 사진그림엽서와 팸플릿·사진첩 등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프로파간다 관련 역사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